

실수해도 다시 끓이면 돼... 인생아, 커피만 같아라

February 28 2020 | 이해운 기자

실수해도 다시 끓이면 돼... 인생아, 커피만 같아라

화가 문성식이 만난 '블루보틀' 창업자 제임스 프리먼

화가 반 고흐는 지독한 커피 애호가였다. 커피 없이는 작업을 못 했다. 그의 작품 '밤의 카페테라스'는 자주 거된 프랑수아 들라의 카페를 그린 것이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에 걸린 한 작품 앞에 두 남자가 섰다. '블루보틀' 창업자 제임스 프리먼(53)과 문성식(40) 작가다. 막빛 하늘에 설랑 과자처럼 별이 뿌려진 이 그림 제목은 '별이 빛나는 밤에'. 문 작가는 "고흐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국적도 나이도 직업도 다른 두 사람. 서로 팬이라는 이들은 이날 블루보틀 삼청한옥에 앉아 예술과 커피, 전원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창작과 직관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예술과 커피는 닮았다"고 말했다.

문 작가는 2018년 일본 도쿄(東京)에서 처음 블루보틀을 접했다. "첫인상은 도도했어요. 인테리어부터 맛까지 참 예민했죠. 창업자가 누굴까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클라리넷을 연주하다 차고에서 커피를 만들었다니! 온 감각에 집중해 커피를 내린다는 말에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클라리넷 연주자로 매년 10만km씩 순회공연을 다니다 2002년 커피 사업에 뛰어들 프리먼도 "음악가와 커피 사업가로서 삶이 비슷하다"고 했다. "연주나 커피나 매일 연습하면 조금씩 나아져요. 커피가 좀 더 유연하긴 하죠. 실수하면 다시 끓이면 되니까."

두 사람은 최근 살던 도시를 떠났다. 프리먼은 오랜 샌프란시스코 생활을 정리하고 작년 10월 아내의 고향인 LA 교외 마을로 이사했다. "도시 생활이 지쳤던 것 같아요. 여긴 많이 달라요.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온 가족과 저녁을 먹기 위해 랍갈을 준비하고 고기를 구워요. 그때 나는 나무 냄새가 절 행복하게 하죠."

문 작가도 서울을 떠나 2년 전 부산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2005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최연소 작가로 참여한 후 제 삶은 너무 가혹했어요. 전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외부에서는 저를 대단한 작가로 이해했어요. 그런 상황이 창작하는 데 한계를 느끼게 했죠. 부산은 아내와 달맞이 고개 빛깔 놀이를 왔을 때 좋았던 기억이 많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커피를 즐기는 곳은 주로 집이다. 문 작가는 매일 아침 스튜디오에 도착하면 커피를 드립해 마시며 작업을 시작한다. "심은 온종일 시



문성식 작가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 반 고흐의 동명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

커피 애호가 두 남자의 대담

프리먼

클라리넷 공연하다 차고서 창업 연주처럼 커피도 연습이 필요해

문성식

화가 고흐도 사랑했던 커피 그에게 영감받은 작품도 만들어

도때도없이 커피를 마셔요. 작업이 고되다 보니 신경안정제처럼, 카페는 대학교 때 많이 다녔어요. 종로에 있는 '카페 뎀 셀브즈' 단골이었죠."

프리먼도 "내게도 커피와 위스키가 신경안정제"라며 "그중 커피가 더욱 건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 작은 로스터리(원두 볶는 곳)도 만들었다"며 "떡갈 나무로 만든 작은 바도 있다"고 말했다.

블루보틀의 인기 대해 프리먼은 "내가 맛있다고 생각한 커피를 팔았더니 많은 사람이 좋아했다"고 말했다. 블루보틀을 유명하게 만든 파란색 병 로고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인 '팬톤 2995C 블루'"라며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제안받은 40개 로고 중 제일 눈에 띄었다"고 했다. 문 작가도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없을 때까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저도 정원을 가꾸고 아이들과 바비큐 냄새를 맡으며 살고 싶어요. 클로드 모네도 복권에 당첨되고 정원을 가꾸며 살았거든요. 전 모네처럼 큰 집은 필요 없어요. 꽃과 새를 키우며 그림을 그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자 프리먼이 제안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거나 행복을 찾고 싶을 때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름다운 장미꽃을 발레들이 갈아 먹는 걸 볼 수 있어요. 독수리가 다람쥐를 사냥하는 모습도요(웃음)."

이해운 기자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블루보틀 삼청한옥에서 만난 제임스 프리먼(왼쪽) 창업자와 문성식 작가. 서로 팬이라는 이들은 "예술과 커피는 창작과 직관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참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고바우 영감' 기리는 박물관, 군포에 들어선다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의 김성환(1932~2019) 화백을 기리는 '고바우 뮤지엄 (가칭)'이 경기 군포시에 생길 전망이다. 군포시는 "고인의 작품 및 아카이브 5000여점을 공공 문화유산으로 기증받는 협약식을 24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김 화백이 군포와 연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생전 박물관 건립을 염원했던 만큼 시 차원에서 '고바우 영감'을 위한 전시 공간을 창출하겠다

고 유족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김 화백의 아내 허금자 여사는 "고인의 작품과 소장품이 역사를 일깨우는 공공 자산으로 쓰이길 바란다"고 했다. 완공까지는 최대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바우 영감'은 1950년 처음 시작해 조선일보 등을 거쳐 2000년까지 총 1만4139회 연재된 최장수 신문 네컷 만화다. 별세 후 김 화백은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했고, 이달 초 국립대전원총원에 안장됐다.

정상혁 기자

